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 지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 경 혜*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인생 후반기에 대두되는 비혈연적 사회관계망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예비노인의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탐색하고, 예비노인 남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관계망의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도시에 거주하는 50~69세 남녀 1,652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순위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비노인들은 평균 6.1명의 친한 친구를 가졌으며, 한 달에 한번 정도 접촉을 하고, 친구의 절반 정도는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친구관계망을 통해 경청자, 교제, 사회적 자극제공 기능을 충분한 편으로 경험하였다. 남성 예비노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친구관계의 특성은 사회적 자극 제공이었고, 여성 예비노인의 경우 친구관계망의 크기, 근거리에 거주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경청자로서의 기능을 경험할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다. 한편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여성 예비노인의 경우 선행연구와 다르게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망 특성의 차이는 도시거주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역사회도입 양성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용어: 예비노인, 50·60대, 친구관계망, 친구관계 구조, 친구관계 기능, 성별 차이, 행복감

이 논문은 이지현의 석사논문(2011)의 일부를 수정·발전시켜 작성하였으며,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KRF-2008-328-B00005)임을 밝힌다.

* 교신저자: 한경혜, 서울대학교(ghhan@snu.ac.kr)

■ 투고일: 2012.4.30 ■ 수정일: 2012.6.14 ■ 게재확정일: 2012.6.18

I. 서론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인구학적 전망과 그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지금, 인생 후반기 사회관계망에 주목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는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현재 65세 노인의 기대여명은 남성 17.1년, 여성 21.5세로 개인의 일생에서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인을 둘러싼 사회관계망의 모습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노년기의 자녀 세대와의 관계가 그중 하나인데,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노인독신가구의 비율은 34.3%에 이르며,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부부 가구의 비율은 34.5%이다. 즉 노인인구의 약 70%가 자녀 세대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 2011). 또한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도 낮아져 60세 이상 노인의 29%만이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통계청, 2012). 노년기에는 노인들이 자신을 일차적이고 전반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며 살아가게 되지만(최정아·서병숙, 1992), 그 관계망에서 자녀 세대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노인 주변의 가까운 비혈연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형성된 안정된 사회관계망은 노인에게 일상생활에서,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심리적, 정신적 건강과 삶에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노인은 일차적인 가족 이외에도 친구나 이웃과 같은 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심리적, 신체적 안녕을 추구하게 된다(박경숙, 2000). 그 중에도 친구관계망은 개인을 둘러싼 친밀한 관계들 중 하나로써, 가족이나 친척, 직장동료와 같은 다른 관계망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자들이 인생 후반기의 중요한 사회 관계망으로 친구관계망에 주목하는 이유는, 먼 저 동년배로서의 관계라는 점에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Allen, 1989), 이러한 연령의 유사성은 노년기 친구들이 공통의 가치, 흥미, 경험 등을 공유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이다(윤희·한경혜, 1994). 즉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이든, 새로 사귀게 된 친구이든 동년배

의 친구사이에서는 공유된 코호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질감이 형성되며, 생애과정 상 같은 단계를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생활 방식이나 관심사를 갖고, 서로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친구관계 내에서는 지위나 역할에서 벗어난 평등한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Matt & Dean, 2003), 이러한 특성은 부모-자녀 관계나 위계사회의 조직과 같이 수직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에서 오는 역할기대, 단절감, 세대 차이 등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스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친구관계의 또 다른 큰 특징은 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의 자발성이다(Allen, 1989; Litwin, 2001). 혈연과 같이 정해진 구조를 통해 저절로 맺어지는 인간관계와 달리, 친구관계는 개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형성 및 유지되는 관계이다. 연령의 증가와 함께 신체적 건강의 악화,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같은 여러 변화를 겪는 노인에게 있어, 자신이 누군가와 오래도록 우정을 나누는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또는 새로운 사람과 친구라는 이름으로 사귀게 되었다는 경험은 노인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Wood & Robertson, 1978). 학자들은 특히 친구관계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기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Seeman & Berkman, 1988),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웃과의 대화와 같이 비공식적인 관계망으로부터 더 큰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고 한다(Gray, 2009). 노년기의 사기와 복지감에 관련해서도 가지고 있는 친구의 수와 접촉빈도가 가족관계보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밝히는 등(Spakes, 1979) 친구관계망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명해왔다.

이처럼 친구관계망은 인생 후반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존재이지만, 노인의 친구관계망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노인의 전반적인 사회관계망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친구관계를 이웃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측정하거나, 가족 이외의 비혈연관계로 한데 묶어 측정한 경우가 많았다(차승은, 2007; 민기채·이정화, 2008; 천의영, 2010). 또 연구 목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강선경·박희경, 2008)이나 노인공동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Adams, 1986), 저소득층 독거노인(김수현 외, 2008), 또는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노인(Ferraro et al., 1984) 등 한정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친구관계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다수 일반적인 노인들의 친구관계에 대한 정보를 주는 연구는 아니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특히 노인의 근거리 사회관계망의 모습을 탐색하고, 건강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대개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배진희, 2004; 오승환, 2007).

친구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관계의 특징이나 기능 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초기 외국의 연구자들은, 여성의 친구관계는 미주보는 방식으로 상대에 대한 관심과 지지, 감정이입의 정도가 높은 형태를 보이지만, 남성의 친구관계는 나란히 서는 방식으로 외부활동의 공유를 지향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등, 남성과 여성이 친구관계에서 즐기는 활동이나 중요시하는 가치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을 보여왔다(Wright, 1982). 성별은 개인의 경험을 크게 달라지게 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따라서 노인이 형성하고 있는 친구관계망의 모습과 그로 인해 얻는 행복감을 보다 정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틀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생 후반기에 접어드는 50대와 60대의 친구관계망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50~60대의 개인은 예비노인¹⁾이라고도 지칭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성장한 자녀의 독립과 결혼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애단계상 다시 부부 중심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때이며, 사회적으로는 주된 직업에서의 은퇴를 예상할 수 있는 때이다. 즉, 생애과정 관점에서 보면 50, 60대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과도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예비노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역할 규범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역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때문에 동일한 생애 경험을 유사한 시기에 함께 겪기 때문에 동질감을 나누고, 서로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친구관계는, 일상 생활과 사회적 역할 영역에서 모두 재구조화를 이뤄야 하는 예비노인에게 친구관계망은 매우 유용한 적응기제로 기능하며(윤희 외, 1994), 궁극적으로 행복감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1) 학자들도 중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해당하는 50~60대에 대한 합의된 명칭이나 구분 범주를 갖고 있지 못하다. 가족관계, 직업 등 여러 영역에서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전이는 성인 초반에 비해서 연령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개인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점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아울러 주요 법령에서 노인으로 정의하는 65세 이상 인구집단에 있어서도, 70대 이상을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8.3%로 높고 이와 같은 경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정경희, 2011).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인생 후반기로의 역할 전이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50~60대 초반과 노인으로서의 연령기준을 넘었지만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60대 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50~60대를 ‘예비 노인’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아울러 예비노인 시기의 친구관계망은 이후 노년기의 삶의 모습과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중년에서 노년으로 나이듦에 따라 친구관계망에서도 구성적, 기능적 측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친구관계는 형성과정에서부터 가족적, 사회적 역할과 별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사회적 역할 변화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Allen, 1989), 다른 학자들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악화, 주거지의 이동 등은 친구관계와의 상호작용을 크게 바꾸어 놓는다고 주장한다(Adams, 1986). 이러한 변화에 관하여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은 노년기의 삶의 모습과 삶의 질이 본격적 노년기의 진입 이전의 생활습관 및 라이프스타일과 상당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한경혜 외, 2011). 노년기에 나타나는 친구관계망의 양상도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 이전부터 맺어온 친구관계망을 기본적 토대로 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 노인이 노년기에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은 주로 이전에 맺어진 관계망 중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는 데 적합한 친밀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회정서적 선택이론 관점(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Carstensen, 1992)에서 보았을 때에도, 50, 60대 시기의 친구관계망을 바탕으로 하여 노년기 후반의 친구관계망이 구성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노인 남녀의 친구관계망의 특징을 살펴보고, 남녀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 경험을 구체화하고, 어떠한 특징이 예비노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기제로서의 작용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예비노인들의 친구관계망은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친구관계망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여기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어서 이러한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이 예비노인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 영향을 주는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은 어떠한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은 어떠한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셋째,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은 예비노인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의 친구관계망

가. 친구관계망의 정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구관계망은 다른 사회 관계망과는 구별되는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대상이지만, 노인의 친구관계망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노인의 전체 사회관계망을 다룬 연구에서 친구관계망은 ‘비혈연집단’에 포함되거나(천의영, 2010), 이웃과 구분되지 않고 ‘친구·이웃 관계’로 묶여 분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민기채 외, 2008; 차승은, 2007). 이와 같이 친구관계가 독립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이유로 가족관계가 노인에게 있어 가장 주된 관계망이라는 연구결과와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관계망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점(정병은·이기홍, 2009)과 더불어, 친구관계를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친구관계망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생애 경험을 나눈 동년배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관계를 곧 친구관계로 정의할 수는 없다. 친구관계 정의의 어려움은 초기의 연구들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다. 일정한 사회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 조건만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면 놓치는 관계가 생길 위험이 있지만, 또 구조적인 특성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개인의 인식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Adams, 1986).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Demir 외(2006)는 참여자에게 친한 친구 3명을 선정하게 한 후 그 중 가장 친한 친구와 두 명의 가까운 친구로 구분하여 친구관계망의 특징과 행복감에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또 반대로 남석인(2008)은 남성노인에 대한 연구에서 친구관계망이 가지는 동년배의 속성만 살려 친구관계를 정의하기도 하였

다. 이렇게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친구관계의 경계를 정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노인들이 스스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친구관계를 정의하는지 연구한 학자들도 있다. Fischer(1982)의 연구에서는 성인들이 혈연관계, 직장 동료나 이웃이 아닌 관계로서 비슷한 연령층이고 오랫동안 사교적인 관계로 사귀어온 사람들을 친구로 꼽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Patterson 외(1993)의 연구 결과를 보면, 친구관계가 사회심리학적 기능 차원에서 정의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친구를 헌신, 상호 이해, 호혜성, 잦은 만남, 유사성의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러한 관계를 주고받는 대상을 친구관계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Adams et al., 2000에서 재인용).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친구관계망은 가족 외적 사회 관계망에서 위와 같은 친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노인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친구관계망을 개념화할 수 있게 유연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친구관계망의 구조

친구관계망이 포함되는 사회관계망은 개인의 행동 및 안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서,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의 양면에서 접근해야 한다(Litwin, 2009). 노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은 사회적 지원이 분배되거나 교환될 때의 매개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구조적 특성을 토대로 노인이 받는 지원의 방식과 양, 성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Antonucci, 1985). 또 이를 토대로 노인의 사회적 유대를 지속,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친구관계망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구조적 변수에는 관계망의 크기, 접촉빈도, 지리적 근접성 등이 있다.

친구관계망의 크기란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상호작용하며 친구라고 규정짓는 관계인 사람들의 수인데, 노인이 직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원망의 크기와 비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 자본의 지표로서 중요하게 다뤄진다(이기숙·김현지, 2002). 노년기에는 주거이동, 은퇴, 건강 등의 이유로 친구나 지인의 비율이 이전에 비해 작아질 가능성이 크지만(Antonucci et al., 2001), 노인이 가족이 아닌 친구관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다는 점에서 친구관계의 존재는 노인에게 필

수적이다. 친구를 많이 가질수록 노인의 사기가 높아진다는 Wood 외(1978)의 연구나, 친구의 수가 많은 것이 노인의 우울증을 낮추는 데 유의한 변수로 작용함을 밝힌 하근영과 홍달아기(1999)의 연구처럼, 넓은 친구관계망은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노년기에 관찰되는 친구관계의 감소가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노화과정에서의 적응을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서는 노화와 관련하여 감소하는 사회적 관계는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서적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 관계망을 조정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기의 감소가 곧 긍정적인 영향력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Carstensen, 1992).

친구관계망과의 접촉빈도는 대면 만남이나 전화 연락의 빈도를 말하는데,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긴밀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변수이다(원효중·옥선화, 2002). 노년기의 적극적인 활동참여를 강조했던 Rowe와 Kahn(1998)은 노년기의 안녕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로 친구들과의 교류횟수를 꼽았으며(정병은·이기홍, 2009에서 재인용), 박기남(2005)은 노인이 친구 및 이웃과 전화연락을 자주하고 직접 만나는 횟수가 잦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건강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들에서도 친구와의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다고 응답할 확률은 증가하였다(최성수 외, 2008). 또 친구/친척과의 잦은 접촉은 부정적 건강평가 가능성을 낮추고, 심각한 만성질환 가능성을 완화하며, 불행하다고 지각할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었고(치승은, 2007), 노인의 우울감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병일·모선희, 2007).

친구관계망의 거리적 근접성은 개인을 중심으로 친구관계망 구성원들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지를 뜻한다. 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나 관계망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도움의 종류 및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최정아 외, 1992),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산다는 것은 대면접촉의 기회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과,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친구와 가까이 거주할 때 지원적 상호작용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며(Verbrugge, 1977), 친구가 가까이 사는 것은 한국 노인의 높은 행복감과 낮은 우울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근영 외, 1999). 가까운 거리 내 또는 같은 도시 내에 거주하는 것은 관계망과의 상호작용의 형태와 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며(한남제, 1988),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동 반경이 작아지는 노년기에 더욱 부각되는 영향력이라고 생각된다. 즉 노년기에도 사회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변수인 것이다(Pilisuk & Minkler, 1980; 윤희, 1994에서 재인용).

다. 친구관계망의 기능

사회관계망은 대체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서적 기능, 도구적 기능, 경제적 기능, 친교적 기능, 정보제공 기능 등이 연구되었다(김양호, 2005). 노인의 성인자녀나 형제와의 관계와는 달리, 친구관계망의 지원기능에서는 지속적인 물질적인 도움이나 도구적 지원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정서적 지원이나 친교적 기능의 비중이 보다 높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 Wood와 Robertson(1978)은 자발적이고 상호동등한 지위에서의 호혜성이라는 친구관계의 특성이 정서적인 측면의 지원기능을 부각시킨다고 설명한다(최정아 외, 1992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유로 친구관계망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지원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외국의 연구들은 ‘정서적인 친밀감(emotional intimacy)’과 ‘교제(companionship)’가 친구관계망이 가장 많이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임을 밝혔다(Adams & Blieszner, 1989).

노인들은 걱정이 있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친구에게 의지하며(Cantor, 1979), 친구는 조연이나 위로, 속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정서적 친밀감을 제공한다. 특히 친구들 중에서도 노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감정이나 비밀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경청자(confidant)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노인의 정신건강과 사기증진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한다(Adams, 1986a; Reisman, 1981; Adams et al., 1989에서 재인용). 대개 유사한 생애단계와 역사를 경험한 동년배로 이루어진 친구관계는 은퇴나 배우자 사망과 같은 생애단계의 전환과정에서 노인에게 든든한 지원책이 된다. 근래에 배우자 사망을 경험한 여성노인들의 사회관계망을 살펴본 Bankoff(1983)의 연구를 보면, 배우자 상실의 슬픔과 과부로의 전환 과정에서 동년배 친구, 특히 같은 처지에 놓인 친구들이 제공한 위로와 조연으로부터 가장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정서적인 친밀감과 더불어, 친구관계는 노인에게 교제활동의 기능을 제공한다.

Larson 외(1986)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가족보다도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욱 즐겁다고 평가하였는데, 그 이유로 가족들과는 일상적인 집안일이나 세대관계의 기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하여 친구들과는 좀 더 활동적이고 재미를 유발하는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친구들과의 교체활동은 나쁜 행동습관을 억제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기 효능감과 자기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향으로 도움을 준다(Giles et al., 2005).

이 밖에도 친구관계망은 사회적 자극을 제공한다. 사회적 자극이란 정보나 관계망으로의 소개를 통해 노인으로서 하여금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Atchley, 1980; Cantor, 1979; Sugawara & Akiyama, 2005에서 재인용). 친구관계망은 더 큰 사회적인 활동이나 단체로의 연결을 도와줄 수 있는 잠재적인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 친구관계망과 성별

친구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별(gender)에 따라서 친구관계망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한경혜 외(2011)의 연구는 남녀 예비노인의 사회참여 정도나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참여하는 단체 수가 많고 동창회, 향우회, 직장관련 모임 등에서의 참여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종교기관에서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또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지향 동기 수준이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보이는 차이는 성 역할 이론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 성별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행동과 기대되는 역할이 서로 다른데, 이러한 규범은 개인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의식 속에 내재화되어 기능한다는 것이다(Jun, 2001; 주경희,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 행동이 노년기에도 여성은 비공식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에 더 관여하고, 남성은 공식적인 관계에 더 많이 관여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별 차이는 친구관계망에서도 발견되어 왔다. 친구관계망의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성별에 따라 그리고 생애단계

에 따라 달라졌는데, 성인 초중반기에는 남성이 더 친구가 많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 비슷해지고, 노년기를 지나면서는 여성이 더 큰 친구관계망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모든 생애단계에서 여성이 더 큰 친구관계망을 갖는다고 하거나, 계층과 같은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포함시켜 분석하는 등 일관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다(Allen, 1989). 이러한 결과의 모호성에 대하여 남녀의 친구관계망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 방식의 차이를 보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비교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Walker, 1995). 친구관계망의 기능별로 살펴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의 친구관계는 마주보는 형식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지지행동, 자기노출과 감정이입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남성의 친구관계는 곁에 서는 형식으로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며, 상대적으로 정서적 교류 점수는 낮다고 본다(Wright 1982; Parker & de Vries, 1993). 한국의 연구에서도 남성노인의 동년배 관계는 정서적지지, 의사소통기능보다 지적교류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나타났다(남석인, 2008). 하지만 남성의 경우 여성인 친구와 의사소통할 때는 정서적 교류 점수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났던 것과 같이,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에 집중해 있다고 하기 보단 각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Parker & de Vries, 1993).

한편 친구관계와의 상호작용은 여성에게 있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가 더 큰 것으로 나오고 있다. Antonucci 외(1998)는 여성의 경우 가깝다고 느끼는 관계망이 큰 경우보다 작은 관계망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남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친밀하게 의논할 친구가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낮은 우울 증상을 보인데 반하여, 남성에게서는 가까운 친구의 유무가 우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Antonucci 외, 2001). 또 친구의 지지는 배우자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는 여성에게서만 나타난다고 한다(Walen & Lachman, 2000).

3.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과 행복감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복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행복은 객관적인 기준인 인지적 평가와 더불어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주관적 판단으

로 구성된다고 하였다(성보훈·윤선아, 2010). 행복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적 평가와 정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주관적 삶의 만족도, 심리적 복지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Esterlin, 2002). 노년기의 행복과 관련해서는 심리학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으로 노년기 행복의 구성요소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행복감을 설명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는 행복 증진의 핵심적인 활력제로서 관계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따스한 정서적 지원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는데, 정서적 지원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4-5배 정도 된다고 한다. 즉 가까운 사람들과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노인들이 더 행복하였는데(이주일 외, 2006), 친구관계망은 이러한 노인의 친밀한 사회관계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친구관계가 행복감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데 동의하며, 그 이유로 친구관계가 가장 두드러지게 제공하는 정서적 영역에서의 지원을 꼽는다(정순돌, 2007).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행복감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이신숙·이경주, 2002), 신체적, 생산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감소한 노인에게 있어 자신이 누군가에게 친구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인의 행복감이 증가시킨다고 한다(Thomas, 2010).

노인의 사기 증진에 있어서 친구는 가족구성원보다도 더 효과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노인이 절친한 친구를 많이 가질수록 친구와의 접촉이 빈번하며 이것은 노인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Spakes, 1979; 윤희 외, 1994). 또 노인이 친구 및 이웃과 전화연락을 자주하고 직접 만나는 횟수가 잦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박기남, 2004). 친구관계망이 노인의 행복도에 특히나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이유로 친구는 비슷한 연령에 비슷한 환경의 경험을 한 또래이기 때문에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는 생활만족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정화·한경혜, 2003)과 노인은 가족구성원보다 친구와 함께 할 때 더욱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여가생활을 한다는 점(Larson et al., 1986)이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도시의 은퇴 남성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한국·일본 비교연구(한경혜 외, 2009)’의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위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남성 은퇴자들의 사회참여 과정 및 사회적 통합성 유지 관련 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이다²⁾. 자료수집의 대상은 한국의 도시지역(서울, 광주, 전주, 청주)에 거주하는 50~69세의 예비노인 남녀이다. 연구참여자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할당 표집방법을 통해 표집되었으며, 2009년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조사로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참여자 전체 표집수는 1,711명(남성 836명, 여성 877명)인데, 본 연구는 주요 분석이 친구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친구관계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문항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 즉 친구관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응답자와 부적합 응답(59명)을 제외한 1,65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 도구

친구관계는 자발적으로 형성되며, 가족이나 직장동료와 같이 사회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 유지되는 관계가 아닌 만큼, 개개인이 친구를 정의하는 방식과 기준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친구관계를 다룬 일부 연구자들은 이론적, 실용적 이유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경계를 정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Rosow(1967)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친구로 관계망을 한정하였으며, Rosenberg(1970)나 Cohen과 Rajkowski(1982)는 최근에 연락을 한 사람으로 친구를 제한하였다. 또 전체적인 친구관계망보다는 가장 친한 친구 3명만을 골라 응답하게 한 연구도 있다(Demir et al., 2006에서 재인용). 그러나 친구관계망 정의의 개인차를 극

2) 이 프로젝트의 한국측 자료는 도시지역 은퇴자들의 사회적 통합성 유지 관련 요인의 한일 비교를 위해 일본 동경대학교 자료에 상응하는 자료를 한국 50, 60대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일본측 자료는 동경대학교에서 수집하였으며, 동경과 근처 중소도시의 50, 60대 남성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관련요인 및 개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특성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선정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된 친구관계망을 이용하는 방식에는, 기준에 속하지 않지만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관계망이 누락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친구관계망이란 노인의 사회관계망 안에서 친구관계로 묶일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제한한 기준의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연구참여자 스스로가 친구라고 인식하는 관계를 친구관계망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설문지에서는 이러한 노인의 주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친구관계망을 지칭하기 위하여 “친한 친구(들)”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가.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은 사회적 지원이 분배, 교환되는 매개체인 관계망의 형태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노인이 받는 지원의 방식, 양,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Antonucci, 1985).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망 연구들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친구관계망의 크기, 접촉빈도, 지리적 접근성을 주요 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한 개인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정의내리며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친구의 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귀하는 친한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주관식으로 응답받았다.

두 번째로 친구관계망과의 접촉빈도는 개인이 관계망의 구성원과 직접 대면하며 만나거나,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빈도를 의미하며, “친한 친구들과는 평소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해 물어보았다. 문항은 5점 척도로, 보기는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번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 ‘1년에 한 번이나 그 미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셋째, 친구관계망의 지리적 근접성은 개인을 중심으로 친구관계망 구성원들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지를 뜻하는데, 노인과 가까운 곳에 친구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대면접촉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서울과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사회관계망 연구보다는 좀 더 넓은 반경을 가까운 곳으로 보려고 하였다. 질문은 “친한 친구들 중 평소 이용하시는 교통수단(도보 포함)으로 1시간 이내에 서로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였으며, 문항은 5점 척도로, 보기는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반반이다’, ‘많이 있다’, ‘대부분이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나. 친구관계망의 기능적 특성

친구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으로는, 일본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Sugawara et al., 2005)에서 친구관계망의 기능이 크게 3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 친구 기능 척도를 이용하였다. 3가지 기능이란 비밀을 터놓고 자기공개할 수 있는 친밀한 정청자(confidant)로서의 기능, 일상과 여가활동을 공유하는 교제 기능(companionship), 사회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기능(social stimuli)이며, 각 기능은 2개의 문항에서, 해당 기능을 하는 친구가 없을 경우 0점부터 부족하다(1점), 충분하다(4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기능의 점수는 두 문항의 점수의 합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점수범위는 0에서 8점까지가 된다. 기능별 두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해본 결과, 정청자 문항 .798, 교제 문항 .741, 사회적 자극 .803로 바람직한 수준이었다. 순위화 로짓 분석에서는 2문항의 표준화 점수를 합하여 3개의 친구관계 기능 변수를 구성하여 모델에 투입하였다.

표 1. 친구관계망의 기능과 해당 문항

친구관계망의 기능	기능별 문항
정청자(confidant)	문항 1: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문항 2: 곤란할 때 자기 일처럼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
교제(companionship)	문항 1: 시간 있을 때 함께 지내는 친구가 있다
	문항 2: 특별히 용무 없이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사회적 자극 (social stimuli)	문항 1: 나를 성장시켜 주는 친구가 있다
	문항 2: 사고방식에 자극을 주는 친구가 있다

다. 행복감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인의 행복감이다. 긍정 심리학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행복감의 차원을 나누고 각각의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감 척도들을 개발해 왔다. 기존의 행복감 척도들은 크게 행복감을 한 문항으로 묻는 단일문항 척도, 필라델피아 노년학 센터의 사기 척도와 같은 다문항 척도, Ryff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 Diener의 삶의 만족도 척도와 같은 다차원 척도로 나눌 수 있다. 보통 단일문항 척도는 다문항이나 다차원 척도에 비해 타당도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행복감 또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학자들이 기존의 행복감 척도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단일 차원의 결과가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다차원인 경우에도 한 개의 잠재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George, 2010).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GSS)와 같은 대규모의 사회조사에서는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당신은 요즘 매우 행복하다, 행복한 편이다 또는 매우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와 같은 단일 문항을 통해 행복감을 측정하며, 단일문항은 이해하기가 쉽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횡단 비교 분석 시에도 유용하다(George,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혹은 행복하지 않으십니까?”라는 문항으로 행복감을 측정하였으며, 3점 척도로서 ‘별로 행복하지 않다(1점)’, ‘어느 정도 행복하다(2점)’, ‘매우 행복하다(3점)’의 세 보기를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예비노인 남녀의 친구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 그리고 그것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분할표 분석, 카이 검증 및 t 검증, 순위와 로짓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여러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어서 예비노인 남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친구관계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성별에 따른 보기 위하여 t-test와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친구관계망의 특성들이 예비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가 여러 범주로 순서화된 이산척도로 구성

되었을 때 유용한 순위화 로짓모형 분석(ordered logit mod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모두 PASW 18.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분석의 대상이 된 참여자는 총 1,652명이다. 연령은 50세에서 69세 사이의 예비노인들로, 평균 연령이 58.1세였으며, 50~54세의 예비노인 초기 연령층이 약 33.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들의 배우자 유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엔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8.2%인데 반하여, 여성의 경우 18%가 현재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chi^2=34.454$, $p<.000$). 노년기에 있어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의 무배우 비율이 높은 것은 한국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박기남, 2004), 아직은 젊은 50~60대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회경제학적 지표로서, 본인의 생활수준을 7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가장 많은 수인 약 44.6%가 본인은 중간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본인을 중상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은 약 15%에 그쳤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했는데($\chi^2=92.704$, $p<.000$), 남성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4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30.3%,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이 22.6%로 이어졌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절반인 50.5%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40.3%는 고등학교 졸업이었고,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은 9.2%정도로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을 때, 다수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약간 만족하는 편(41.3%)이라고 응답하였고, 만족한다는 비율도 35.8%로 높은 편이었다. 성별의 차이도 유의하였다($\chi^2=20.375$, $p<.000$). 건강 상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여성은 31.9%인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39.8%로, 여성 노인에 비해 남

성 노인들이 본인의 건강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자들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유의하였는데($\chi^2=112.534$, $p<.000$), 남성의 경우 대다수인 81.3%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대답하였다. 주된 직업활동을 지속하는지, 아니면 은퇴 후 다른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예비노인이인 50~60대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57.1%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변수	구분	전체	남성	여성	χ^2
연령	50~54세	33.7(557)	32.6(263)	34.8(294)	5.401(n.s.)
	55~59세	27.6(456)	28.9(233)	26.4(223)	
	60~64세	20.9(345)	19.2(155)	22.5(190)	
	65~69세	294(17.8)	19.2(155)	16.4(139)	
	평균(S.D.)	58.1(5.711)	58.2(5.798)	57.9(5.627)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86.8(1434)	91.8(740)	82.0(694)	34.454***
	무배우자	13.2(218)	8.2(66)	18.0(152)	
생활수준(7점)	상상/상/중상	14.9(246)	15.0(121)	14.8(125)	.956(n.s.)
	중	44.6(737)	43.4(350)	45.7(387)	
	중하/하/하하	40.5(669)	41.6(335)	39.5(334)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40.6(671)	30.3(244)	50.5(427)	92.704***
	고등학교 졸업	43.6(721)	47.1(380)	40.3(341)	
	대학교 재학 이상	15.7(260)	22.6(182)	9.2(78)	
주관적 건강	불만	5.3(87)	5.6(45)	5.0(42)	20.375***
	약간 불만	17.7(297)	13.9(112)	21.3(180)	
	약간 만족	41.3(682)	40.7(328)	41.8(354)	
	만족	35.8(591)	39.8(321)	31.9(270)	
현재 경제활동 여부	현재 경제활동 중	68.9(1138)	81.3(655)	57.1(483)	112.534***
	현재 경제활동 안함	31.1(514)	18.7(151)	42.9(363)	
계		100.0(1652)	100.0(806)	100.0(846)	

2. 예비노인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과 성별 차이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구조적인 영역의 세 지표인 관계망의 크기, 만남연락의 빈도, 거리적 근접성을 통해 알아보았다.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응답자가 생각하는 친한 친구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스스로에게 1명에서 4명의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0.6% 정도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성별에 따라 친구 수의 분포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chi^2=17.412$, $p<.01$), 1명에서 4명의 친구를 가진 사람은 남성(36.6%)에 비해 여성(44.3%)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집단은 5명에서 9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로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였다. 20명 이상의 대규모의 친구관계망을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도 4.1%를 차지하였는데, 이 집단에서는 남성(5.6%)의 비율이 여성(2.7%)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친한 친구 수의 평균값을 보면, 응답자들은 평균 6.12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성(6.64명)의 경우 여성(5.61명)보다 평균 1명 정도 더 많은 수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서구에서 성별에 따라 친구 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은, 노년기에는 여성의 친구관계망이 남성에 비해 더 크다고 한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에 따라 상이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Allen, 1989), 본 연구의 대상인 예비노인들의 경우엔 남성이 조금 더 큰 친구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친구관계망과의 접촉 빈도는 얼마나 자주 친구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사람들(35.5%)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친구들과 만나거나 연락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1주일에 1번(29.8%) 또는 1주일에 몇 번(23.3%) 친구들과 상호작용한다고 했다. 만남연락 빈도가 높은 사례는 여성(27.7%)이 남성(18.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chi^2=22.952$, $p<.000$).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2008)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친구, 이웃과의 주 1회 이상 연락빈도와 왕래 빈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친구관계망의 거리적 근접성은 평소 교통수단으로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의

절반(49.9%) 정도의 응답자들이 친한 친구의 대부분이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고 답하였다. 여성의 경우(53.8%)에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의 비율이 남성(45.8%)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chi^2=15.301$, $p<.000$).

표 3. 예비노인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단위: %, 명)

구조		전체	남성	여성	χ^2
친구 관계망의 크기	1~4명	40.6(670)	36.6(295)	44.3(375)	17.412**
	5~9명	36.0(595)	36.6(295)	35.5(300)	
	10~19명	19.3(319)	21.1(171)	17.5(148)	
	20명 이상	4.1(68)	5.6(45)	2.7(23)	
	평균(S.D.)	6.12(5.228)	6.64(5.944)	5.61(4.524)	3.932***
친구 접촉 빈도	1년에 한번 이하	1.7(28)	1.9(15)	1.5(13)	22.952***
	1년에 몇 번	9.7(160)	11.8(95)	7.7(65)	
	한달에 한번	35.5(586)	36.4(293)	34.6(293)	
	1주일에 1번	29.8(493)	31.3(252)	28.5(241)	
	1주일에 몇 번	23.3(385)	18.7(151)	27.7(234)	
친구 거리적 근접성	적다	16.1(266)	19.2(155)	13.1(111)	15.301***
	반반이다	34.0(562)	35.0(282)	33.1(280)	
	대부분이다	49.9(824)	45.8(369)	53.8(455)	
계		100.0(1652)	100.0(806)	100.0(846)	

1) + $p<.10$, * $p<.05$, ** $p<.01$, *** $p<.001$

3. 예비노인 친구관계망의 기능적 특성과 성별 차이

다음으로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의 기능적인 특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예비노인들이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고민이나 속이야기를 자신의 일처럼 들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경청자(confidant)’로

서의 친구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평균 점수가 남녀 각각 5.70점, 5.71점으로 충분한 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친구관계망의 '교제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시간이 있을 때 함께 지내거나, 특별한 용무 없이도 같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경험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물었는데, 남녀 모두평균 5.95점으로 충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극'을 주는 친구는 날 성장시켜주는 친구가 있다거나 사고방식에 자극을 주는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평균 점수는 남녀 각각 5.19점, 5.20점으로 보통에서 충분한 편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청자 기능과 교제기능에 비해서는 평균 점수가 낮아 친구관계망으로부터 얻는 기능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관계망의 기능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친구관계로부터 얻는 기능에 대한 평가는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 비슷한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예비노인 친구관계망의 기능적 특성

기능	단위: M(SD)				
	전체	남성	여성	T	p.
경청자(confidant)	5.70(1.500)	5.70(1.494)	5.71(1.505)	-.116	.908
교제(companionship)	5.95(1.456)	5.95(1.430)	5.95(1.481)	.067	.947
사회적 자극 (social stimuli)	5.20(1.529)	5.19(1.529)	5.20(1.529)	-.235	.814

1) + p<.10, * p<.05, ** p<.01, ***p<.001

2) 점수 범위: 0-8점

3) 유효표본수(N)- 교제: 남성 794명, 여성 835명/ 경청자: 남성 795명, 여성 839명/ 사회적 자극: 남성 735명, 여성 776명

4.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차이

가. 친구관계망 특성과 남성 예비노인의 행복감

순위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에 따른 남성 예비노인의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3) -2Log L 값을 보면 독립변수를 포함

시킬 때 값이 감소하여 모형이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검정 결과 추정 모형은 유의하였다($\chi^2=243.672$, $p<.000$).

남성 예비노인에게서 친구관계의 구조적인 특성인 친구관계망의 크기, 연락만남의 빈도, 거리적 근접성이 행복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긴 하지만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사기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친구관계의 기능적인 특성에서는 사회적 자극 기능만이 크게 유의하여 ($p<.001$), 사회적 자극 기능 점수가 한 단위 올라가면, 남성 예비노인의 행복감은 1.43배가 되었다. 성별차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남성의 친구관계는 공통의 활동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고 말했는데(Wright, 1982), 충분히 경험한다고 했던 교제 기능보다도 가장 부족했던 사회적 자극의 기능이 남성 예비노인의 행복감 증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남석인(2008)은 남성 노인들이 동년배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나 의사소통 기능보다도 지적인 교류 중심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자신을 성장시켜주고, 새로운 사고방식에 노출시켜주는 사회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친구 기능이 행복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 예비노인에게 있어서는 통제변수 중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 생활수준이 크게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 예비노인의 행복감이 3.5배에 이르렀다. 이후 분석에서 여성 예비노인에게서는 무배우자에 비해 유배우자의 행복감이 1.485배 정도($p<.10$)밖에 되지 않았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본 박기남(2004)도 배우자 유무가 남성노인에게서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뚜렷했지만, 여성노인에게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학자들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감정적, 물리적 혜택을 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 우울감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한다(Umberson et al., 1992; 송지은 & Marks, 2007에서 재인용). 이 밖에도 주관적 건강 수준이 한 단위 올라갈수록 행복감이 2.5배가 되며, 생활수준이 한 단위 올라갈수록 행복감이 약 2.4배가 되어 신체적 건강과 안정된 경제적 생활수준을 갖는 것이 남성 예비노인의 행복감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3) 모형의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부표 1>참조

본 모형에서는 경제활동 여부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 친구관계망 특성과 남성 예비노인의 행복감

구분		β 추정값	표준오차	Wald	Sig.	Odds ratio (Exp(β))
한계치	행복감=1	3.727	.726	26.362	.000	
	행복감=2	9.416	1.037	82.421	.000	
사회 인구 학적 변수	배우자 유무	1.256**	.414	9.205	.002	3.511
	현재 경제활동	.247	.273	0.821	.365	1.280
	주관적 건강	.923***	.158	33.997	.000	2.517
	생활수준	.887***	.13	46.218	.000	2.428
구조	친구관계망크기	.006	.022	0.065	.798	1.006
	접촉빈도	.035	.114	0.093	.761	1.036
	거리적근접성	.147	.105	1.963	.161	1.158
기능	경청자	.185 +	.105	3.116	.078	1.203
	교제	-.075	.104	0.515	.473	0.928
	사회적 자극	.364***	.102	12.639	.000	1.439

표본크기(N)=726(836)

절편만 -2Log L=1288.066, 최종 1044.393

1) + p<.10, * p<.05, ** p<.01, ***p<.001

2) 가변수 처리: 결혼지위(0=무배우자, 1=유배우자), 경제활동(0=현재 경제활동 안 함, 1=현재 경제활동 함)

나. 친구관계망 특성과 여성 예비노인의 행복감

다음으로, 순위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에 따른 여성 예비노인의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은 독립변수를 포함시키면 -2Log L값이 감소하여 더 나아졌으며, 검정 결과 추정 모형은 유의하였다($\chi^2=286.003$, $p<.000$).

여성 예비노인의 경우, 구조적 특성 변수 세 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감

에 영향을 주었다. 친구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행복감도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는데,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친구관계망의 크기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여성 예비노인의 행복감이 1.049배가 되었고, 친구의 수가 1명이 늘어날 때 행복감이 약 5% 정도 증가하였다. 또 거리적 근접성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1.206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친구관계망의 크기와 거리적 근접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Moren-Cross & Lin, 2006)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접촉빈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여성 예비노인의 행복감이 약 17.6% 감소하는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친구 및 이웃과 전화연락을 자주하고 직접 만나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박기남, 2004)나 건강(최성수 외, 2008)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어서 친구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이 여성 예비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경청자 기능만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신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고민을 나누는 막역한 사이를 의미하는 경청자(confidant) 기능을 경험하는 정도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행복감 약 18% 정도 증가하였다($p < .05$). 여성 예비노인들은 교체 기능이나 사회적 자극 기능은 충분한 편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행복감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은 경청자로서의 친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것인데, 대체로 여성의 친구관계는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관계망이 남성에 비하여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말하는 학자들은, 그 이유로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망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Wright, 1982). Antonucci 외(2001)의 연구에서도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서는 의논할 수 있는 경청자 친구가 우울증상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 수준이 한 단위 올라갈수록 행복감이 2배가 되었으며, 생활수준도 한 단위 올라갈수록 행복감이 2.2배가 되어 여성 예비노인이 행복감을 경험하는 데 있어 건강과 생활수준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p < .001$).

표 6. 친구관계망 특성과 여성 예비노인의 행복감

구분		β 추정값	표준오차	Wald	Sig.	Odds ratio (Exp(β))
단계 치	행복감=1	2.929	.585	25.035	.000	
	행복감=2	7.385	.661	124.647	.000	
사회 인구 학적 변수	배우자 유무	.395 +	.222	3.171	.075	1.485
	현재 경제활동	-.188	.165	1.298	.255	0.828
	주관적 건강	.729***	.110	44.187	.000	2.073
	생활수준	.797***	.094	72.050	.000	2.219
구조	친구관계망크기	.048*	.022	4.999	.025	1.049
	접촉빈도	-.193*	.088	4.799	.028	0.824
	거리적 근접성	.187*	.088	4.534	.033	1.206
기능	경청자	.167*	.082	4.148	.042	1.182
	교제	.084	.076	1.229	.268	1.088
	사회적 자극	.110	.071	2.425	.119	1.116

표본크기(N)= 770(877)

절편만 -2Log L=1333.916, 최종 1047.913

1) + p<.10, * p<.05, ** p<.01, ***p<.001

2) 더미변수 기준: 결혼지위(0=무배우자, 1=유배우자), 경제활동(0=현재 경제활동 안 함, 1=현재 경제활동 함)

V. 결론

본 연구는 50, 60대의 예비노인 남녀에게 있어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중 어떠한 특징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4개 도시에 거주하는 50~69세의 예비노인 남녀 1,652명을 대상으로 구조적 질문지를 통한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여 친구관계망의 구조와 기능, 행복감을 측정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도 탐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은 결론과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예비노인들은 평균 6.1명의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친구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빈도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친구와 만나거나 연락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절반 정도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친구들과 상호작용하였다. 노인들의 친구관계망 구성원의 절반 정도는 1시간 이내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친구와의 접촉빈도와 근거리에 거주하는 친구비율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에서는 남녀 모두 고민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청자 기능, 여가 시간을 함께 하는 교제 기능, 사고방식에 자극을 주는 사회적 자극 기능을 충분한 편에 가깝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 예비노인의 행복감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친구관계망의 특성은 사회적 자극 기능이었으며, 친구관계망의 크기, 접촉빈도, 거리적 근접성 등의 구조적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남성에게 있어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사고방식을 자극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남성들의 친구관계에서 취미활동, 운동과 같은 공동의 활동을 함께하는 행동양상이 관찰된다고 하였는데(Parker & de Vries, 1993),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보내며 교제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호작용을 통해 지적, 사회적인 자극을 받는 기능이 더욱 중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병은과 이기홍(2009)은 예비노인과 전기노인들에게서 관계적 활동보다 배움, 소일거리와 같은 생산적인 사회활동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는데, 예비 남성노인들의 경우 관계적 사회활동의 일부인 친구관계에서도 사회적 자극과 같은 생산성에 가치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역할 이론에 의해서도 남성에게는 정서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보다 공적인 사회생활을 강조하는 규범이 있으며, 이러한 규범이 남성들이 친구관계망에 대해서 기대하는 가치에도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80%가 넘는 활동성을 지닌 집단인 만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성 예비노인은 친구가 많을수록, 본인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고민과 비밀을 나누고, 서로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경청자로서의 기능을 경험할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친구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기공개, 높은 수준의 감정이입, 상담의 기능이 두드러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며, 여

성은 이처럼 친구 개개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친구의 수 자체가 더 풍부한 정서적 교류와 비례하여 행복감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넷째, 예비노인들의 친구와의 접촉 빈도는 전국노인 평균에 비해 낮은 정도였으며,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접촉 빈도는 친구관계망과의 상호작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노년기 안녕감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는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빈도가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여성 예비노인에게 있어서는 친구와 자주 접촉할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57.1%) 여성 예비노인들에게 있어서 친구를 자주 만나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활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유급 활동을 안하더라도 비공식적인 손자녀 돌봄 등으로 일상이 여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자율성과 호혜성을 특징으로 하여 주로 긍정적인 영향력만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 예비노인에게 있어서는 잦은 친구관계망과의 접촉은 긍정적 영향과 더불어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양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게다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도시형태의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잦은 접촉이 공간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과 함께, 그것이 도시거주 예비노인의 행복감의 필수요소는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성 예비노인에게 있어 친구의 수와 경청자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은 대인관계의 친밀성이 강조되는 여성 친구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와 부합하지만, 그것이 곧 잦은 접촉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구조의 일본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실질적인 접촉의 빈도는 매우 낮더라도, 친구의 존재 자체가 노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는데(Sugawara et al., 2005), 한국의 예비노인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남성 예비노인에게 있어서는 친구관계망 특성보다도 배우자의 존재가 행복감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였지만, 여성 예비노인에게서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가 없었다. 사별을 경험한 여성노인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경우 배우자를 상실한 경우에도 주변의 친구나 이웃관계와 심리적 유대를 형성하며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의 강도가 크기 때문인지 다른 어떤 독립변수보다도 배우자의 존재가 행복감을 느끼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우자를 상실한 남성 예비노인은 행복 수준이 낮은 위기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기존 관계망이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근거리에 거주하는 친구의 비율은 여성 예비노인들이 훨씬 높았다. 하지만 배우자를 상실한 남성들은 부인을 경로로 하는 사회참여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때문에 근거리 또는 새로운 관계망 형성이 어려워져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비노인의 현재 친구관계망이 노년기의 친구관계망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위기집단에 있는 무배우 남성 예비노인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들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동년배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도시거주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역사회 커뮤니티 양성 정책 등을 개발할 때에 친구관계망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평균 6.1명의 친구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예비노인들은 앞으로 노화함에 따라 거주지 이동, 거동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기존 친구관계망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농촌에 비해 지역사회 내의 소속성이나 개방성이 낮은 도시거주 노인들의 경우 예비노인 시기 때부터 친구관계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동년배집단과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이때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동년배 활동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남녀 예비노인에 대하여 친구관계망의 특성 중 성별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졌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남성 예비노인에게 있어서는 일, 자원활동, 취미활동 등에 대한 접근성과 연계하여 사회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여성 예비노인은 가까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서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안정된 동년배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또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친한 친구의 정의는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한 정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종속변수로 사용한 행복감도 단일변수를 이용하여 행복감의 스펙트럼을 충분히 파악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중 관계의 지속기간이나 성별, 연령의 동질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부족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아울러 후속연구에서는 예비노인기의 과도기적 특성을 반영하는 은퇴, 자녀결혼,

거주지 이동 등 변화하는 속성을 추적하며, 이에 따라 함께 변화하거나 아니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친구관계망 구조와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연구된 바가 적은 50, 60대 예비 노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들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망에 초점을 둔 첫 연구로서, 친구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친구관계망의 특성들이 예비노인의 행복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지현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 아동가족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구고령화, 중·노년기의 사회참여, 가족관계 등이다.
(E-mail: jilee113@kihasa.re.kr)

한경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
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에서 교수이자 서울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 및 중·노년의 라이프코스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노년-은퇴설계 지원센터 센
터장으로서, 한국의 베이비부머 종단연구(Korean Baby Boomers Panel Study)를 주도하고 있다.
(E-mail: ghhan@snu.ac.kr)

참고문헌

- 강선경, 박희경(2008). 친구망과 심리적 지지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pp.117-139.
- 김수현, 강현정, 김윤정(2008). 농어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3), pp.51-71.
- 김양호(2005). 중년남성의 건강과 사회관계망 특성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pp.103-126.
- 남석인(2008).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 및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28(40), pp.1297-1315.
- 노병일, 모선희(2007).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1), pp.53-69.
- 민기채, 이정화(2008).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제공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3), pp.515-533.
- 박경숙(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 pp.621-647.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pp.13-29.
- 박영신, 김의철(2009).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pp.95-132.
- 배진희(2004).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자녀와 이웃지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pp.197-216.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연구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성보훈, 윤선아(2010).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6, pp. 103-134.
- 송지은, Marks, Nadine F.(2007). 결혼 및 은퇴 상태가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0(1), pp.25-47.
- 오승환(2007).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소도시·

- 농촌·어촌지역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3, pp.209-231.
- 원효중, 옥선화(2002). 가족의 사회관계망 유형화 연구: 도시 핵가족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pp.149-164.
- 윤희, 한경혜(1994). 노년기 형제 지원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14(1), pp.117-139.
- 이기숙, 김현지(2002).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 대한가정학회지, 40(6), pp.133-144.
- 이신숙, 이경주(2002).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1), pp.1-20.
- 이정화, 한경혜(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1), pp.209-238.
- 이주일, 정지원, 이경미(2006). 미국거주 한인노인과 국내노인 간 행복감의 차이 및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pp.169-203.
- 정정희(2011). 백세시대의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80, pp.16-27.
- 정병은, 이기홍(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pp.953-970.
- 정순돌(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7(4), pp.829-845.
- 주경희(2010). 사회참여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 성별과 연령차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차승은(2007). 노인의 결혼지위 점유에 따른 건강차이: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2), pp.371-392.
- 천의영(2010). 노인의 사회 연결망 유형과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간호학회지, 40(1), pp.88-98.
- 최성수, 이가람, 이성민(2008). 사회적 연결망과 은퇴 경험이 한국 중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8(2), pp.291-307.
- 최정아, 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pp.65-78.

- 통계청(2011). 2011 고령자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1. 대전: 통계청.
- 하근영, 홍달아기(1999). 노인의 교우관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노년학연구*, 8 pp.75-90.
- 한경혜, 김주현, 박경숙, hiroko Akiyama, 이재인(2011). 도시지역 연소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동기 요인간의 관련성. *한국노년학*, 31(4), pp.1189-1208.
- 한남제(1988). 도시주민의 친족관계. *한국사회학*, 22(1), pp.1035-1059.
- Adams R. G, Blieszner, R.(Eds)(1989). *Older adult friendship: structure and process*, Sage.
- Adams, R. G.(1986). A look at friendship and aging. *Generations*, 10(4), pp.40-43.
- Adams, R. G., Blieszner, R., DeVries, B.(2000). Definitions of Friendship in the Third Age: Age, Gender, and Study Location Effects. *Journal of Aging Studies*, 14(1), pp.117-133.
- Allen, G.(Eds)(1989). *Friendship: developing a sociological perspective*. Westview press.
- Antonucci, T. C.(1985).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ocial behavior. In Binstock R. H., Shanas E.(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Antonucci, T. C., Akiyama, H., Lansford, J. E.(1998). Negative Effects of Close Social Relations. *Family Relations*, 47(4), pp.379-384.
- Antonucci, T. C., Lansford, J. E., Akiyama, H.(2001).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Marital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on Well-Being of Older Adult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5(2), pp.68-75.
- Bankoff, A. B.(1983).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4), pp.827-839.
- Carstensen, L. L.(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 pp.331-339.
- Demir, M., Ozdemir, M., Weitekamp, L. A.(2006). Looking to happy tomorrows

- with friends: Best and close friendships as they predict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8(2), pp.243-271.
- Easterlin, R. A.(2002).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PNAS)*, 100(19), pp.11176-11183.
- Ferraro, K. F., Mutran, E., Barresi, C. M.(1984). Widowhood, Health, and Friendship Support in Later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5, pp.245-259.
- Fisher, C. S.(Eds)(1982). *To dwell among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orge, L. K.(2010). Still happy after all these years: Research frontiers on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5B(3), pp.331-339.
- Giles, L. C., Glonek, G. F., Luszcz, M. A., Andrews, G. R.(2005),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10 year survival in very old Australians: The Australi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9(7), pp.574-579.
- Gray, A.(2009), The social capital of older people, *Ageing & Society*, 20, pp.5-31.
- Larson, R., Manell, R., Zuzanek, J.(1986). Daily well-being of older adults with friends and family. *Psychology and Aging*, 1, pp.117-126.
- Litwin, H.(2001). Social network type and morale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41(4), pp.516-524.
- Litwin, H.(2009). Social Networks and Well-being: A Comparison of Older People in Mediterranean and Non-Mediterranean Countri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5B(5), pp.599-608.
- Matt, G. E., Dean, A. D.(2003).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elderly persons: Moderator effects of ag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4(3), pp.187-200.
- Moren-Cross, J. L., Lin, N.(2006). Social networks and health. In R. H. Binstock

- & L. K. George(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6th edition, London: Academic press, pp.111-126.
- Parker, S., de Vries, B.(1993). Patterns of Friendship for Women and Men in Same and Cross-Sex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pp.617-626.
- Seeman, T. E., Berkman, L. F.(1988).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ocial support in the elderly: who provides support. *Social Science & Medicine*, 26(7), pp.737-749.
- Spakes, P. R.(1979). Family, friendship and community integration a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 pp.279-293.
- Sugawara, I., Akiyama, H.(2005). Functions of adult friendship among Japanese adults, *Seminar for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as, P. A.(2010). It Better to Give or to Receive?: Social Support and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5B(3), pp.351-357.
- Verbrugge, L. M.(1977). The Structure of Adult Friendship Choices. *Social Forces*, 56(2), pp.576-597.
- Walen, H. R., Lachman, M. E.(2000). Social support and strain from partner, family, and friends: Costs and benefits for men and women in adulthood.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17(1), pp.5-30.
- Walker, K.(1995). “Always There for Me”: Friendship Patterns and Expectations among Middle and Working Class Men and Women. *Sociological Forum*, 10(2), pp.273-296.
- Wood, V., Robertson, J. F.(1978). Friendship and Kinship Interaction: Differential Effect on the Morale of the 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2), pp.367-373.
- Wright, P. H.(1982). Men’s friendships, women’s friendships and the alleged inferiority of the latter. *Sex roles*, 8, pp.1-20.

〈부표 1〉 독립변수 간의 Pearson 상관계수

구분	배우자 유무	현재 경제활동	주관적 건강	생활수준	친구관계망 크기
배우자 유무	1				
현재 경제활동	.099**	1			
주관적 건강	.165**	.150**	1		
생활수준	.271**	.014	.286**	1	
친구관계망 크기	.086**	.050*	.126**	.138**	1
접촉빈도	-.084**	-.080**	.096**	.109**	.117**
거리적 근접성	.033	-.070**	.083**	.060*	.066**
경청자	.066**	.015	.268**	.216**	.303**
교제	.049*	-.008	.252**	.212**	.320**
사회적 자극	.044	.003	.146**	.175**	.267**

구분	접촉빈도	거리적 근접성	경청자	교제	사회적 자극
배우자 유무					
현재 경제활동					
주관적 건강					
생활수준					
친구관계망 크기					
접촉빈도	1				
거리적 근접성	.272**	1			
경청자	.245**	.219**	1		
교제	.286**	.254**	.874**	1	
사회적 자극	.193**	.183**	.673**	.696**	1

* p<.05, ** p<.01

Korean Pre-elders' Friendship Experience and Happiness

Lee, Ji Hyun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Han, Gyoung Ha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at concretizing Korean pre-elders' friendship experience by examining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aspects of friend networks, and finding out, combined with gender, how these characteristics affect happiness. To that end, a face-to-fac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1,652 men and women aged 50~69 living in urban cities, and the data was analyzed with ordered logit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e-elders had on average 6.1 close friends, contacting with them at least once a month, and half of their friends were living within 1 hour range of their major transportation. Second, on the functions of friendship, pre-elders experienced fair amount of companionship, existence of confidants, and social stimuli from their friends. Third, for pre-elderly men, receiving social stimuli from friend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ir happiness. But most of all, not having a spouse decreased their happiness significantly, suggesting that single pre-elder men population should be watched with care. Fourth, for pre-elderly women, the number of friends, living distance, and having a confidant boosted their happiness. This study explains the friendship experience of a vast population of pre-elders in Korean citie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fertilize a social network of the future elderly.

Keywords: Friendship, Friend Network, Pre-elder, Happiness, Social Network